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2025년 9월 28일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얼음 깨기

## 추석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  
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달이 유난  
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가오는 명절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유난  
히 밝은 좋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추석 연휴에 어디 가는지 안부를 물어보세요.
2. 명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나눠보  
세요
3. 목원 식구들과 추석의 풍성함을 나눠보세요

## 교회행사

### 9월

5일	향기로운 금요일 시작
7일	진공첫 5기 시작 어와나 2학기 개강
21일	풍삼기 2기 시작
21일/28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3기)

###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가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19일	사역박람회 (3주간)
22일	필그림/ 벤쿠버한인합창단 찬양예배
23일/25일	1차 세례 교육
25일	신중년 야유회
30일/11월1일	2차 세례교육

## 경배 찬양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 소식

### 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가을맞이 더말씀으로 사경회를 오는 10월 12일(주일)~15일(수)까지 주일 낮 예배와 매일 밤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김형국 목사(하나복 대표)가 “확립된 정체성, 선명한 인생살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를 강해합니다.

### 2. 추석 명절예배 안내

3일(금) 향기로운 금요일과 8일(수) 수요일예배는 개인 기도로, 명절 기간 6일(월)~9일(목)까  
지 아침기도회도 개인기도로 대체합니다.

## 선교

## [이태균 선교사]

### 라오스

1. 팀원들이 라오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지치지 않게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2. 라오스 청년들이 물질의 공급자는 하  
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3. 팍세 지역에 적응할 때 주님의 지체  
와 사랑으로 순직하게 적응할 수 있  
도록.
4. 아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 한문장 큰 울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나”

- 마태복음 4장 4절 -

**[역대하 11장 17절]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삼 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나라가 분열되었으나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를 통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1.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워서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18만 명이나 모였습니다.(1절) 이때 르호보암의 계획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로보암의 왕국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2~3절)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4절)

**[나눔] 우리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눠봅시다.**

## 2. 성읍들을 건축하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르호보암은 적국이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하여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5절) 이 도시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에 속했고(6~10절) 예루살렘의 남쪽과 남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블레셋과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은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으며 지휘관들을 두었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면서 방패와 창을 두어 외세의 침략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11~12절)

환난과 고난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걸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속 기도와 은혜가 쌓여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몰아치는 환난과 고난에 휩쓸리게 되고 준비가 안된 성도는 고난밖에 보이

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비추되고 준비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며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나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내 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3. 유다로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13~14절)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뱀엘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15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고향과 가업조차 기꺼이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모습을 한번 나눠봅시다.**

## 4.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든 무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은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내려온 이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내려온 피난 자들은 유다와 르호보암이 다윗과 같은 길로 가게끔 하는데 은혜의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나눔] 나는, 우리 교회는 믿음의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세요**